

## 묵상과 경건

### 453.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말씀: 약 4:17

요절: 약 4:17

오늘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런 행위나 일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 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 역시 동일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그 행위와 함께 일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란 영이 없는 몸이란 말과 똑같습니다(약2:20,26).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 living faith)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롬14:23) 믿는 자가 그 믿음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약4:17).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구별하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선한 행위는 믿음을 보여 주는 가치 판단의 척도요, 사랑의 가늠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판별법을 보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요일3:10).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행위’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사역했던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악하며, 배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것이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교리로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해악을 끼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life)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그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과 동떨어진 진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보다 못한 것이거나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히10:7,9)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요 6:38)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주를 믿은 성도

들은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벧전4:2).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멋이고 행복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언제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성경의 교리란 하나님과 사람,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련된 객관적인 성경적 사실(fact)입니다. 하늘과 땅, 지옥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건과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영적 사실들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연구와 관찰, 실험과 정신적 깨달음, 철학적 사유 등으로 결코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역사적, 영적 사실들을 계시해 주시므로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쉽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 진리, 계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적 배움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객관적 정보와 사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아는 그대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훈계와 경고와 책망과 바로 잡음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로 잡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두셨고, 이 사실은 인류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유대의 악한 왕들이나 사악한 죄인들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있다, 지옥이 있다, 다가올 세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진리이기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근본적인 진리를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열매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고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 모든 교리는 믿고 순종하여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먼저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행해야 합니다.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믿는 자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2:14).

•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풍성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8).

•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노동의 목적, 가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 키우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일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엡4:28).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노동이 노역이 아니라 사역이 됩니다. 그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딤후6:18).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안다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믿는 이들이라면 그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깨닫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을 실행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들을 분명히 배우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던 이것은 분명한 영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며 만왕의 왕이시란 사실(진리, 교리)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한 번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창조주란 진리를 안 이후와 이전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충격과 변화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는 진리(교리)는 누구에게도 면제되지 않고, 예외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접한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없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듣고 안 것이지만 결코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듣기만 하고 단지 아는 정도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안 후에 그것을 행하려는 열정과 강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는 진리는 내 마음 속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배웠는데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성경을 통해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고, 열매를 내는 씨앗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입증)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전5:21, 고후13:5.

첫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 믿음과 결합하지 못했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히4:2).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지식으로 받은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오고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입니다. 행위는 먼저 마음의 감동,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말씀을 받는 것과 머리에 받는 것은 그 결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으면 자신과 다를 때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반발을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받으면 자신과 다를 때 회개합니다. 자신과 같으면 더욱 크고 강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둘째,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터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을 났다가 수분이 부족하므로 곧 시들어 버렸고]**(눅8:6). 마음이란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썩을 띄우고 자라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생수, 강, 물로 나옵니다. 기도의 땀, 섬김의 대야, 회개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말씀의 씨앗이 마음이란 밭에서 자라나게 하는 수분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말씀을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메마르고 건조한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비를 내려 달라고 구하십시오. 밭을 갈아엎으십시오(호10:12).

셋째,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쾌락 등이 넘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눅8:14).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뽑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대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그냥 두면 금방 땅을 못 쓰게 만들며 그 속에 어떤 식물이나 나무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렘4:3).

넷째, 말씀을 들었지만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거나(막4:15), 말씀이 더 이상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가거나 다른 씨앗을 뿌려 놓고 가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 안에 말씀이 있는 줄 알거나 마귀가 뿌려 놓은 다른 씨앗을 주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마13:39, 요5:38

다섯째,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선을 행할 의지(뜻)를 갖고 있지 않다면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결코 삶의 변화나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요7:17)고 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 소원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성경 공부는 교양 지식, 종교 지식, 기독교 지식, 상식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배울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영적分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요7:17).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딤후3:12). 그러나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엡6:8).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보응, 심판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롬2:6).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마16:27). 성경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행위를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지 믿음을 심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지만(히11:6) 그 보상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 행위의 보상(심판)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벧전1:17).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고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믿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빌1:6, 2:13). 주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히13:21).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홀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고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약4:17).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사람들에게 할지니라.]**(갈6:10).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빼돌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딤펴6:18). 이런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다 인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선한 행위의 열매로 보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행위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겠다는 선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뿐 아니라 행해야 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비록 무능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할 힘은 믿음을 통해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지혜를 제공해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다는 것은 진리를 행할 모든 필요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눅12:47,48). 주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행위,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다 행하면서 저러나?, 자기도 잘 못하면서 저런 설교는 왜 하나?”란 식으로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의 많은 회중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대신 목회자나 교사를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행하지 않는 죄를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남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나는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뜻을 행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